THE PIANO

CLASSIC TO PEOPLE

변화를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
문화복지 NGO EnoB
강 태 욱 대표

'문화 복지'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문화의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곁에 알게 모르게 소외된 이들에게도 문화와 예술을 전파해 주는 이들이 있다. 사단법인 이노비(EnoB)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입원환자, 노인들 등을 찾아가 음악회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선사하는 문화 복지 NGO이다. 이노비의 대표, 강태욱을 만나 그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 복지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먼저, 사단법인 이노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노비(EnoB)는 'Innovative Bridge' 라는 두 영어 단어가지고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의역을 하면 '변화를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 라는 뜻이지요. 이노비는 장애인, 노인, 또는 환자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음악회 또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드림으로써 사회 모든 구성원 간의 벽을 없애고자 하는 문화 복지 비영리단체입니다.

2006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처음 설립했고, 2012년도에는 서울로 영역을 넓히게 되었으며, 최근인 2014년 12월부터는 중국에도 지사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의 예술가가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해 줬고, 250회 이상 현장 공연을 통해 25,000명이 넘는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노비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12년 전, 저는 지인을 통해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근무하는 5명의 의사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병원의 어린이 환자들은 소아암 등 중병으로 몇 개월 째 장기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따분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예전에 악기를 다루었던 의사들이 나서게 되었지요. 저는 그 연주를 위해 반주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식을 접할 때부터 "이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음악의 위로와 힘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정작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특수교육 교사들이 운영하는 한인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단체의 선생님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단체의 어린이들은 평생 라이브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들을 위해 라이브 음악회를 만들어 주려고 6개월 동안 교사 몇 명이 800 달러의 음악회 경비를 모아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진심은 저의 마음을 울렸고, 이전부터 꿈꾸며 조금씩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 복지를 실현할 단체를 만들게 되면 제 비전에 동감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면 보다 크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2006년, '이노비' 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노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노비가 하는 일은 '아웃리치 콘서트' 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전문 음악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아웃리치 콘서트의 시작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었지만 점점 더 다양한 소외계층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악회로 시작했던 사업의 영역도 미술 등의 다른 예술 및 문화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들을 위해 여러 병원의 암 병동, 어린이 병동, 한센병 복지관, 호스피스 등을 방문하여 음악회를 열었고, 요양원이나 홈리스 무료급식소, 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관 등을 찾아 음악회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이런 생소한 일을 하시다 보니 지금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노비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노비를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 일을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뜻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011년 5월에 맨해튼에 사무실을 열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봉사자가 많지 않아, 지적 장애인 시설에 뮤지컬 콘서트를 열면서 음향기기를 다루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일을 아내와 둘이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해져서 꾸준히 장애아, 입원환자, 노숙자,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노인 등 다양한 분들을 찾아가 콘서트를 열다 보니 차차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알려졌지요. 그럴수록 행복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22명의 이사, 25명의 뮤직 디렉터들과 약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노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들을 모두 '이노비언(EnoBian)' 이라고 부릅니다. 뉴욕에서 이노비 후원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100여 명의 이노비언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이노비를 하며 늘 아쉬웠던 점이, 한인 유학생 출신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이노비언들이 일에 익숙해질 만하면 귀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이노비언을 모아야했던 어려웠던 시기를 잘 이겨내니 역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노비언들이 많아졌고, 이를 기반으로 2011년에 한국에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2012년 11월에는 뉴욕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한 명의 직원과 함께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비영리단체도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굳이 문화나 예술을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부생이던 시절,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두 분의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함께 버스를 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보조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럭저럭 영화관까지는 잘 갔지만, 영화를 보는 중에 집중을 못하여 주변 관객들에게 실례가 되어 도중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체적이나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음악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면서 이노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소아환자들이나 집중이 힘든 지적 장애 어린이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음악회나 콘서트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만을 위한 콘서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 못하면 콘서트가 그들에게 찾아가자고 말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원 등을 찾아가면, 관객들은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보통 40분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인 분들을 하나로 만들고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도구로 음악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노비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분들의 정서에 맞는 양질의 예술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환자들, 자유롭게 움직이며 음악을 마음껏 즐기는 지적 장애아들… 그들의 웃음 하나하나는 모두 제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움직이기 힘든 뇌성마비 환자들의 병실을 찾아가 음악 연주를 들려준 일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표정이나 말, 혹은 행동으로 기분을 표현하기 힘든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서 음악을 들려주니 음악이 들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자는 음악을 듣자, 연결된 기계의 수치가 눈에 띄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도 했어요. 병동의 간호사들도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며 놀랐죠.

이노비가 활동하는 현장의 모습이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콘서트홀이 아닌 곳에서 음악회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회를 진행할 장소와 대상에 따라 연주할 음악의 장르와 형태가 달라집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뮤지컬, 가요까지도 연주가 가능하지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특히나 더 활기찬 곡을 연주하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인데, 조용하거나 우울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이노비를 운영해온 노하우에 따라서 각 행사를 담당하는 디렉터들에게 음악 편곡이나 선곡을 맡기죠. 보통 병원 같은 곳에서 연주하기에는 바이올린과 기타로 두오 연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움직이기도 편하고, 따뜻한 현의 음색으로 선율 연주와 반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아웃리치 콘서트는 관객에게 더 큰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컬러풀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무대 배경과 소품들뿐만 아니라 연주자들 드레스도 무채색이 아닌 것으로 입도록 신경 씁니다. 더불어 연주자들에게 연주할 때에는 표정도 밝게 짓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관객에게는 더없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많은 음악가들이 이노비언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맨 처음 단체를 설립했을 때는 인지도가 낮아서 예술가들이나 대상기관을 섭외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노비 뉴욕과 서울을 통해 매년 70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약 300여 분의 뮤지션들이 아웃리치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클래식, 재즈, 뮤지컬, 퓨전 등 다양합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를 포함해 유명인들부터 학부 학생들까지,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인종을 초월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뮤지션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주변의, 뉴욕에서 음악을 전공한 음악가들을 섭외하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노비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뮤지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한편으로는 이노비 활동이 SNS를 통해 알려져서 참여를 약속하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 계시는 한인 뮤지션분이 참여를 희망했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뮤직디렉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오시지는 못해도 인터넷을 통해 팀을 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콘서트 기획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노비에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 해주시게 된 데는, 이노비의 아웃리치 콘서트에 참여해 본 뮤지션들의 경험과 소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 공감하며 서로 행복을 주고 받습니다. 콘서트를 마친 후에는 뮤지션과 관객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뮤지션들이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주변에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노비의 미션을 공감하는 뮤지션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은 새로운 뮤지션들은 언제나 이노비언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노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대표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노비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필요한 만큼 문화 혜택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이노비를 통해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복지겠지요? 이노비는 문화 복지 전도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에 있는 한인 단체를 찾아가는 데서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장애인, 소외계층 어린이, 입원 환자들, 한국 다문화 가족, 평택 기지촌 할머님들, 버려진 뇌성마비 어린이들, 호스피스 환자분들과 뉴욕 홈리스 분들과 함께 했고 올해에는 새롭게 중국의 선전과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분들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노비 4번째 전진기지 오피스를 열고 유럽의 소외 지역의 예술 나눔 복지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노비의 역할은 그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재능기부자와 각 지역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분들을, 더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내용과 방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는 것뿐 아니라, 다른 전문 단체들과도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뿐 아니라 다른 나눔으로도 분야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노비가 찾아가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문화예술 외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 NGO나 기업, 정부기관 등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제일 고립되어 있는 나라, 북한에 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이노비가 자유롭게 예술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준비해 봅니다.

글 및 정리 · 심세나 기자 | 사진제공 · 이노비